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이미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닐까? |
| 이슈분석 | 흑한기 VC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
| 금융경영브리프 | 사이버 보험의 보장공백과 대응방안
美 은행, IB부문 수익 급감으로 실적 부진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한국의 역성장과 미국 연착륙 기대 속 등락
외 환 : 유로존 회복과 진격의 유로화
부동산 : 주변 여건 상, 시장 회복은 쉽지 않다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김종현(jh.kim_)

논단

연구위원 김완중(wjkim)

이슈분석

연구위원 송재만(jmsong)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원 진옥희(okheejin)
연구원 송형은(heso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이미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닐까?
- 04 **이슈분석** 흑한기 VC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 08 **금융경영브리프** 사이버 보험의 보장공백과 대응방안
美 은행, IB부문 수익 급감으로 실적 부진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한국의 역성장과 미국 연착륙 기대 속 등락
외 환 : 유로존 회복과 진격의 유로화
부동산 : 주변 여건 상, 시장 회복은 쉽지 않다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이미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닐까?*

김 완 중 연구위원(wjkim@hanafn.com)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와 고용시장 환경 변화를 계기로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국내도 실물부문 충격과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사로 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은폐되어 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 수준의 성장과 금융환경으로 귀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과도한 위기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복합위기 대응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실물경제는 여전히 흑한기인데 금융시장에는 미풍이 불고 있어

지난 한 해 세계경제는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대응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깊은 상흔을 남겼다. 특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자산가격 조정 뿐만 아니라 부채 구조조정 이슈까지 불거지며 글로벌 경기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형성되었다. 국내 또한 리오프닝 효과 소멸 속에 고물가·고금리 여파, 경제심리 위축, 글로벌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금년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충격에 이어 실물 충격까지 가세하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실물부문과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연말까지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로 움츠러들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최근 발표된 美 고용과 물가지표에 고무되며 연준의 긴축 기조 완화 및 연중 인하 가능성까지 기대하며 들뜬 모습이다. 연준 통화정책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고용지표의 경우 최근 임금 상승세 둔화와 더불어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임금·풀타임 일자리 감소/저임금·파트타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고용의 질’ 악화가 서비스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가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11월 7.1%에 이어 12월 6.5%로 하락하는 등 둔화 속도가 빨라지자 연준의 피벗(정책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 확산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리 급등으로
금융충격에 이어
실물충격이 예고되며
성장률 하락 불가피

美 물가 상승세 둔화,
고용환경 악화 등이
연준의 정책전환
기대로 이어지며
금융시장 분위기 개선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선부른 낙관 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통화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외하고
대내외 위기요인 중
해결된 것은 전무한
점에 주목해야

최근 일각에서는 2월초 연준의 금리 인상이 25bp에 그치고 추가 인상도 25bp 내외에 그치며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또한 1월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일단락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진 않는다’는 격언과 같이 현 상황을 재차 곱씹어 보면 마냥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며 선부른 낙관론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한 해 연준이 425bp에 달하는 기록적인 금리인상 단행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데다 리오프닝 특수 소멸과 고비용 구조 전환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국 경제 동반 부진 가능성,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고물가 압력, 부동산 침체 및 감염병 상황 불확실성 등에 기반한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국내적으로는 실물경제 위축,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부실 위험 증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 부실 등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에 대한 청구서가 도래하는 등 역대 어느 때보다 복합요인들에 당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준이 과거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기로 한 점 또한
선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연준의 경우 과거 선부른 정책 전환이 인플레이션 고통을 장기화시켰던 사례와 작년 초 정책 오판 등을 근거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단기간내 정책기조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일단락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결 기조를 유지(higher for longer)할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주목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고착화에 따른 고물가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어 시장기대와 정책 간 상충으로 인한 주기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발작 경험, 공급사슬 구조 변화, 미중 패권 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나타날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가 글로벌 물가·금리·환율의 새로운 균형점을 이전 보다 높은 수준에 귀착시킬 가능성이 큰 점 또한 시장의 즉흥적인 반응이 부담스러운 이유이다.


❖ **과도한 위기론도 경계, 복합위기 대응에 철저한 준비만이 필요**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 둔화는 차치(且置)하더라도 국내부문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우려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지레 위축시켜 위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과도한 위기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최근 금융환경 개선에 따른 금융취약성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차주 단위 DSR 대비 안정적인 가구 단위 DSR 수준을 고려할 때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나름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부동산 PF 관련 문제도 정부와 금융권의 상호 협조 등을 통해 관리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위기론이 자칫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앞에 열거한 개별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각 맞춤형 대책을 통해 나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험 분산 목적으로 개발된 파생상품들이 위기가 발생하자 상관계수가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시장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개별 위험요인들이 상호 증폭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자영업 부채를 포괄한 가계부채 누증,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 급락 및 조정 장기화 이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PF 등 부동산 금융 부실 가능성 등은 독립적인 변수라기보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세심한 경계가 필요하다.

복합위험 하에서는 위기들 간의 상호 연계성에 주목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 위기 속성과 우선순위 변경에 맞춰 보다 세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작년 6월만 해도 국내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대표 요인으로 ①원자재가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②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③러·우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순이었던 반면 금년 들어서는 그 순위가 ①가계의 높은 부채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 ②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부실위험 증가, ③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 순으로 바뀌었다. 위기의 면면을 뜯어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외적/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던 반면 금년에는 정책당국과 시장이 합을 맞추면 나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내적/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얼추 위기의 속성이 대내적이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 대응방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기 쉽겠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구조적 위험요인들은 수십 년간 임시방편 대책들로 문제를 키워왔던 것들이라는 점에서 단기 대책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사회 구조 개혁을 논하는 백년대계 보다는 위기 극복 이후 지속 성장과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십년대계에 중지(衆智)를 모을 때이다. 

수십 년간 묵혀 온 구조적 위험요인들의 해결책으로 거대담론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안을 마련해 지속 추진해야

흑한기 VC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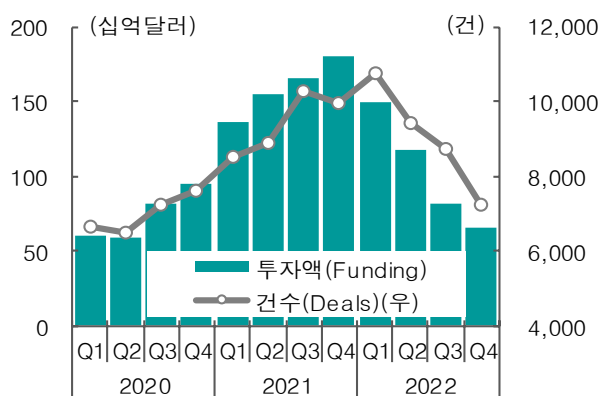
송재만 연구위원(jmsong@hanafn.com)

2022년 국내외 VC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美 연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감소세를 지속하며 시장 위축이 심화되었다. 특히 벤처투자 감소는 mega-round, 유니콘 기업을 포함한 late-stage 기업에서,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VC 시장은 침체 가능성이 높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며, 금융그룹 계열 VC와 CVC는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 역량 제고 및 흑한기 이후 시장 선점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내외 VC 시장은 2021년 4분기 이후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며 위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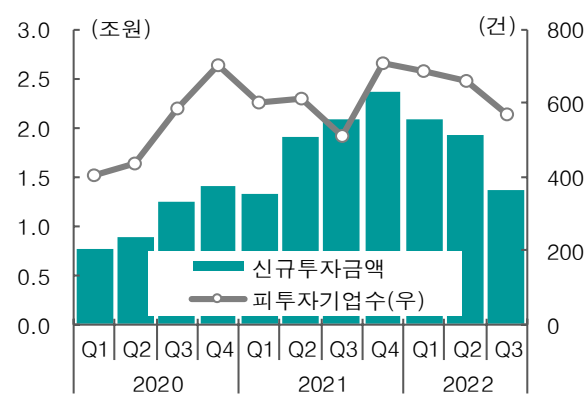
-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은 '21.4분기 1,807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2.4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3.5% 감소한 659억 달러를 기록함
 - '22.4분기 투자 금액은 '20.2분기 597억 달러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
 -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연간, 십억달러) : 297.6('20) → 638.4('21) → 415.1('22)
- 글로벌 VC 시장 위축은 우크라이나 전쟁, 美 연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및 위험자산시장(증권, IPO, 암호화폐 등)에서 안전자산시장(예·적금, 달러 등)으로의 자금이동 확산에 기인
- 국내 VC 시장도 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22.3분기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해 글로벌 VC 시장 추세와 유사한 모습
 - 국내 벤처투자 금액(조원) : 4.3('20) → 7.7('21) → 2.1('22.1Q) → 1.9(2Q) → 1.4(3Q)

■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료 : CB Insights

■ 국내 벤처투자(신규) 금액 및 건수 추이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 "State of Venture 2022 Report", CB Insights, 2023.1

■ 최근 글로벌 VC 시장의 위축은 아시아 지역과 late-stage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2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69.0% 감소한 163억 달러로 타지역보다 큰 폭 감소
 -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중 가장 큰 비중(48.3%)을 차지하는 미국(319억 달러)과 유럽(124억 달러)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6%, 43.9% 감소
- 투자 단계별로 살펴보면, 최근 mega-round(1억 달러 이상)의 투자 비중이 큰 폭 축소되는 등 late-stage 기업의 투자 자금 유치가 어려운 상황
 - 글로벌 벤처투자 중 mega-round 비중은 '21.4분기 59%에서 '22.4분기 36%로 축소
- 또한, 신규 유니콘 기업 수도 VC 시장 침체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감소하며 VC 시장 내 벤처기업 가치 하락 및 구조조정이 진행
 - '21년 분기별 약 130개 이상의 신규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으나 '22년 들어 증가폭이 둔화하며 '22.4분기 19개 수준으로 감소

■ VC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문 VC 및 CVC는 투자를 확대하며 기회를 모색

- CB Insights에 따르면, 전문 VC는 '22.4분기 글로벌 Top 10 투자자 중 8개 이상이 포함되며 VC 시장 내 핵심 투자자 역할을 수행
 - 글로벌 벤처투자 Top 10 투자자(12개사) 중 전문 VC는 10개사이며, SOSV, Andreessen Horowitz(a16z) 등 미국계 전문 VC가 주요 투자자로 활동
 - 다만, 최근 VC 투자자 pool이 다양화되고 Angel, Asset/Investment Management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 규모에서 전문 VC 비중은 '22.4분기 현재 30% 수준
- 최근 대기업 중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도 Coinbase Ventures, 일본 금융회사(MUFG, SMBC, Mizuho) 등이 투자를 확대하며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²⁾

■ 지역별 벤처투자 규모 (단위 : 십억 달러)

	미국	아시아	유럽
'21.2Q	70.4	42.4	30.6
3Q	72.3	50.2	24.2
4Q	92.8	52.6	22.1
'22.1Q	71.2	36.3	26.8
2Q	52.9	27.0	22.7
3Q	36.7	20.1	14.8
4Q	31.9	16.3	12.4

자료 : CB Insights

■ 지역별 신규 유니콘 기업 수 추이 (단위 : 개)

	미국	아시아	유럽	기타	전체
'21.2Q	84	36	18	10	148
3Q	75	31	15	15	136
4Q	82	33	18	6	139
'22.1Q	78	20	20	8	126
2Q	50	16	16	5	87
3Q	15	7	3	1	26
4Q	9	2	7	1	19

자료 : CB Insights

[2] “글로벌 CVC, 일본계 금융회사의 부상”, 하나금융포커스, 2022.9

■ 해외 금융회사들도 기술 역량 및 ESG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

- JPMC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관리 및 지급결제 서비스 부문 강화를 위해 관련 핀테크 기업 인수를 확대하는 추세
 - 핀테크 기업 인수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전통 IB 및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
 - '20년말 이후 55ip('20.12), Nutmeg('21.6), OpenInvest('21.6), Renovite('22.9) 등을 인수했으며, 최근 영국 핀테크 기업 Yapily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3]
- 최근 Barclays는 저탄소경제 전환 노력과 지속가능금융 분야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4]
 - '27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5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 '25년까지 1.75억 파운드 투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
 -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탄소배출 산업의 탈탄소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차세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

■ 국내의 경우, 기업 역량 제고 및 VC 시장 침체 방어를 위해 민관차원에서 공동 대응

- 향후 대내외 경제는 2022년의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파급효과로 경제 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차원의 노력이 요구
- (정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지원을 추진('22.11월)
 - 본 방안에는 투자활력 촉진, 민간자본 유입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을 핵심전략으로 수립해 현재 약 6조원인 벤처펀드 결성 금액을 8조원대로 확대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주요 내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민간 벤처모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영구조(안)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3] “JPMorgan Weighs Investment in Fintech Startup Yapily”, Bloomberg, 2022.9

[4] “Barclays Plans £500 Million Investment in Green Startups by 2027”, Bloomberg, 2022.12

-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기술 혁신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CVC 설립을 확대하며 민간차원의 생태계 기반을 강화
 - '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반 대기업 지주사를 중심으로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대기업 중심의 CVC 설립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금융그룹)** 자체 VC 및 투자 Vehicle을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
 - 국내 금융그룹은 비은행 계열의 포트폴리오 강화 및 수익 다변화를 목적으로 VC 관련 계열사의 신설·인수를 추진
 - 국내 금융그룹 계열 VC는 그룹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SI) 펀드를 조성하고 그룹 주요 계열사가 투자자(LP)로 참여
 - 하나, KB, 신한금융그룹이 결성한 전략 펀드 규모는 펀드당 약 3,000억원 수준

■ 2023년 국내 VC 시장 위축에도 CVC, 금융그룹 계열 VC 중심의 투자 활성화가 예상

- 2023년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화긴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VC 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시장의 위축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VC투자 환경 변화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VC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중소형 VC·스타트업 등 시장 플레이어에 위협 부담이 가중
- 다만, VC 시장 침체 지속으로 late-stage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IPO 추진 등 투자 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early-stage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는 향후 VC 시장의 업사이클과 기업 성장을 기대하며 증가세 유지가 예상
- 또한, 금리인상 추세가 완화되고 중소 VC·스타트업의 옥석가리기가 마무리될 경우, 전문 VC 외 CVC와 금융그룹 계열 VC 중심의 벤처투자도 증가할 전망
 - 국내 CVC와 금융그룹 계열 VC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를 확대하며 기업 역량 제고 및 시장 선점 기회를 모색 

■ 국내 주요 기업 CVC 현황

기업집단	CVC	유형
롯데	롯데벤처스	신기사
코오롱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창투자
CJ	CJ인베스트먼트	창투자
GS	GS벤처스	신기사
동원	동원기술투자	신기사
효성	효성벤처스	신기사
삼성	삼성벤처투자	신기사
포스코	포스코기술투자	신기사
KT	KT인베스트먼트	신기사
신세계	시그나이트파트너스	창투자

자료 : 언론보도 종합

■ 국내 주요 금융그룹 전략 펀드 현황

금융그룹	주요 내용
하나	- '22년 그룹 전략펀드 '하나비욘드파이낸스 펀드' 조성 - 하나벤처스와 하나증권이 Co-GP(3,000억원 규모) -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등이 LP로 참여 - 메타버스, 모빌리티,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등 투자
KB	- '21년 'KB 디지털 플랫폼 펀드' 조성 -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이 Co-GP(3,000억원 규모) - 은행, 카드, 손해보험 등이 LP로 참여 -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기업 등 투자
신한	- '21~'22년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 투자조합' 결성 - 투자조합 1호~2호 각각 3,000억원 규모 -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등이 출자 - 커머스, 프롭테크,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투자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사이버 보험의 보장공백과 대응방안

진 옥 희 연구원(okheejin@hanafn.com)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보험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손실을 증가 문제로 주요 보험사들은 담보 범위를 축소하였고 이에 보장공백이 확대되었다. 해외의 경우 보험사는 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하거나 보험연계증권을 발행하는 등 위험 담보 능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민관 위험 공동부담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도 민관의 협력 등을 통해 위험 보장 여력을 확충하여 사이버 보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 보험 수요가 증가¹⁾

- 사이버 리스크는 온라인 사기부터 데이터 유출, 멀웨어 및 랜섬웨어, DDoS 등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리스크를 포괄하는 개념²⁾
 - WEF(2023)는 단기 및 중장기 글로벌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사이버 리스크를 주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강화 속 사이버공격으로 정보유출, 평판훼손을 넘어 영업 중단과 같은 물리적 피해에 직면함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
 - 美 보안회사 McAfee는 2020년 사이버 범죄로 인한 총손실을 9,450억 달러로 추정
- 이에 따라 Swiss Re는 글로벌 사이버 보험료가 2025년까지 연평균 20% 증가하여 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정규화 어려움 등에 의한 손실을 증가로 보험 보장공백 확대

-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데이터 부족으로 위험 측정 모형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예측 불가능성, 시스템적 상관관계 등으로 손실을 증가
 - 17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NotPetya 공격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2년 美 허리케인 Nicole에 의한 손실에 근접
- 주요 보험·재보험사들이 국가 소속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사이버 전쟁으로 간주하며 보장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보험 보장공백(현재 약 90%)이 확대됨
 - Lloyd's, Munich Re 등은 국가 후원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손실은 보장하지 않음


[1] "Cyber insurance: strengthening resilience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Swiss Re, 2022.11

[2] "은행의 새로운 경쟁력, 사이버 보안", 정윤영, 2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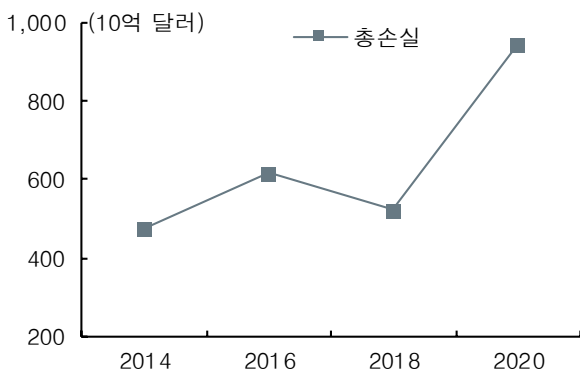
■ 해외 보험사는 사이버 보안기업과 협력하거나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담보 능력을 제고

- 보험사는 사이버 보안기업과 협력하여 사이버 리스크 측정을 고도화하고자 노력
 - 獨 Allianz는 美·英 중소기업에게 AI 기반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 기업 Coalition에 2.5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였으며, 다개년 파트너십을 체결
 - 美 Chubb는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측정 모형을 제공하는 CyberCube와 협력
- 한편, 보험사는 인수한 사이버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유가증권인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 ILS)을 발행하여 위험담보 능력을 확충
 - ILS에는 대표적으로 발생 빈도수가 낮지만 손실이 큰 대재해 채권이 있는데, 보험사는 ILS를 발행하여 보험료 수취권리와 손실보상 의무를 ILS 투자자에게 전가
 - 23.1월 美 Beazley는 최초의 사이버 ILS를 발행(4,500만 달러)하여 위험인수 능력 제고
- 이외에도 사이버 보험 보장공백 축소를 위한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짐
 - 22.9월 美 정부는 사이버 보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리스크를 보험사와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

■ 국내의 경우도 민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험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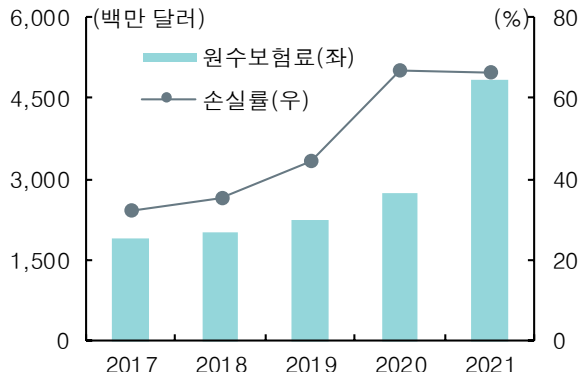
- 사이버 공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내 손해보험사의 사이버 보험은 개인 금융정보 탈취, 정보유출 관련 제3자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정부기관, 군 당국, 국가기반시설, 민간회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 보험사와 인슈어테크·사이버 보안기업 간의 협력, 정부와의 위험 공동부담 등을 통해 물리적 피해도 포괄하는 사이버 보험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
 - 한편, 14년 금융위원회가 재난보험 인수능력 확보를 위해 ILS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논의에 그침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의 자본시장으로의 전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 

■ 글로벌 사이버 범죄로 인한 총손실 추이



자료 : CSIS(2018.2), McAfee(2020.12)

■ 美 사이버 보험 원수보험료와 손실률



주 : NAIC(2022.10)

美 은행, IB부문 수익 급감으로 실적부진

송형은 연구원(hesong@hanafn.com)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의 2022년 실적은 일부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금리 상승의 영향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IB 부문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개별 대형 은행들의 실적 감소폭 차이는 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국내 금융사들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일부 사업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 균형 잡힌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 美 대형 은행의 2022년 실적은 일부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년대비 크게 하락

- 미국 6대 대형은행의 2022년도 순이익은 총 1,155억 달러로 2021년(1,605억 달러) 대비 약 450억 달러 감소(-28%)
- BoA의 순이익은 275억 달러로 6대 대형은행 중 감소율이 14%로 가장 적은 반면 골드만삭스는 113억 달러로 48% 급락하며 실적이 가장 크게 감소
 - 美 대형은행 순이익(\$bn)/증감율(YoY): JP모건(37.7/-22%), 모건스탠리(11.0/-27%), Citi그룹(14.8/-32%), 웰스파고(13.2/-39%)
 - 최근 반복되는 부진한 실적에 골드만삭스는 3천여명의 인력을 정리하는 등 대규모 인력감축을 시행하며 비용절감 프로그램에 착수³⁾

■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부진이 미국 대형 은행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 6대은행의 2022년 순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302억 달러로 높은 성장을 보임
- 반면, 가파른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년간의 거래 호황이 끝나면서 투자은행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
 - 주식 시장의 불황, 미국 내 IPO 조달규모 축소, M&A 딜 위축 등의 요인 작용
 - 美 대형은행 IB 수수료 증감율(YoY): JP모건(-49%), 모건스탠리(-49%), 골드만삭스(-48%), Citi그룹(-47%), BoA(-46%), 웰스파고(-39%)

[3] "Goldman Sachs' profits plunge two-thirds as dealmaking slumps", Financial Times, 20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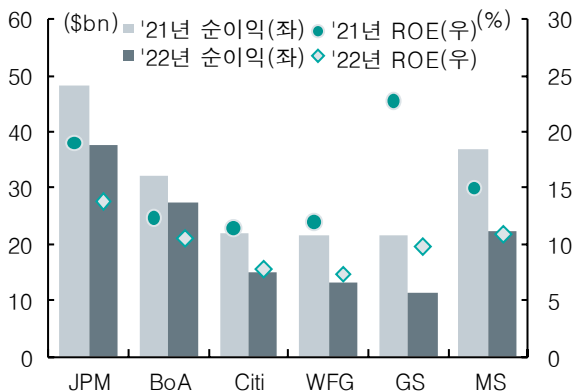
■ 일부 미국 대형 은행들은 사업 포트폴리오 상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실적 감소 모습을 나타냄

- BoA는 수익 구조에서 이자이익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 금리 상승의 수혜로 전년대비 22% 상승한 529억 달러의 순이자이익을 내며 실적 감소폭을 최소화
 - 실적 하락폭이 제일 적은 BoA와 순이익이 가장 큰 JP모건의 이자이익 비중은 각각 55%, 52%인 반면 하락폭이 제일 큰 골드만삭스는 16%로 美 6대은행 중 가장 낮음
- 반면 IB 및 트레이딩에 의존적인 수익구조를 보유한 골드만삭스는 IB 및 트레이딩 부문실적 악화로 전체 순이익이 급감
 - 골드만삭스는 모건스탠리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금융사 인수 등을 통해 자산운영 부문 강화를 위한 전략을 펼쳤으나 단기간에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골드만삭스는 자산관리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산관리 수수료 인상을 고려⁴⁾
- 모건스탠리의 IB 수수료 이익은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자산 관리 부문이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부진을 보완하며 감소폭을 줄임

■ 국내 금융사들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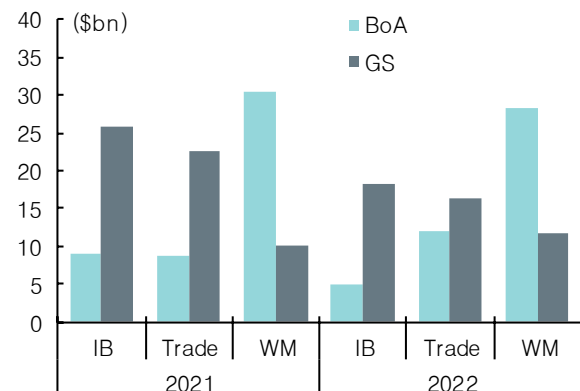
-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신용리스크 증가 우려, 금리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으로 금융사들의 잠재적 리스크 증가
- 국내 금융회사들은 일부 부문에만 의존적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이익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 

■ 美 6대 은행 순이익 및 ROE 추이



자료 : 각 사 IR 자료

■ BoA vs 골드만삭스(GS) 부문별 순수익 비교



자료 : 각 사 IR 자료

[4] "Morgan Stanley retains edge over Goldman Sachs due to booming wealth unit", Financial Times, 2023.1

금리: 한국의 역성장과 미국 연착륙 기대 속 등락

윤 석 진 연구원(sjyun826@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 정책 결정과 미국 4Q GDP 예상치 상회로 따른 연착륙 기대감 등으로 등락했다. 국내금리는 한국 4Q GDP의 역성장 기록 및 한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에 하락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경제 전개 상황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부상하며 관련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국내금리는 기준금리와의 역전 폭 확대, 대외 통화정책회의 경계감,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가격 부담이 부각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주요 중앙은행의 완화적 스탠스와 美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으로 등락

- 美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해 둔화 추이를 이어간 가운데, 경기는 최근 소매판매 지표 부진에 따른 우려에도 4Q GDP가 호조를 보이며 연착륙 기대 부각
 - 미국 GDP (QoQ) : 22.1Q -1.6% → 2Q -0.6% → 3Q 3.2% → 4Q 2.9%(예상 2.6%)
 - 미국 PPI/근원 PPI(% , YoY) : 22.10월 8.1/6.8 → 11월 7.3/6.2 → 12월 6.2/5.5
- 일본은행은 1월 금정위에서 YCC정책의 현행 유지를 결정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구로다 총재의 임기 기간 내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
- 한편, BOC는 금리 인상 폭을 25bp(4.25%→4.50%)로 축소하고 향후 경제상황이 전망대로 전개될 경우 현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
- 美 금리는 1월 소매판매 지표 부진 및 주요 중앙은행들의 비둘기파적 결정 등으로 하락하다 미국 4분기 GDP의 예상치 상회로 따른 연착륙 기대로 낙폭을 축소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 1.13일 4.22/3.51 → 19일 4.10/3.37 → 26일 4.18/3.50


■ 국내금리는 한국 4분기 GDP 역성장 기록 및 한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에 하락

- 이창용 한은 총재는 외신기자 간담회(18일)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3.75% 최종금리 전망이 당연히 하향조정되었을 것”으로 발언하는 등 비둘기파적 스탠스 부각
- 한국 4Q GDP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역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 하강 가시화
 - 한국 GDP (QoQ) : 22.1Q 1.2% → 2Q 0.7% → 3Q 0.3% → 4Q -0.4%(예상 -0.3%)
- 국내금리는 한국 4분기 GDP 역성장에 따른 경기 우려 부각 및 금통위 이후 한은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대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
 - 국고 3/10년 금리(%) : 1.13일 3.37/3.38 → 20일 3.33/3.28 → 27일 오전 3.31/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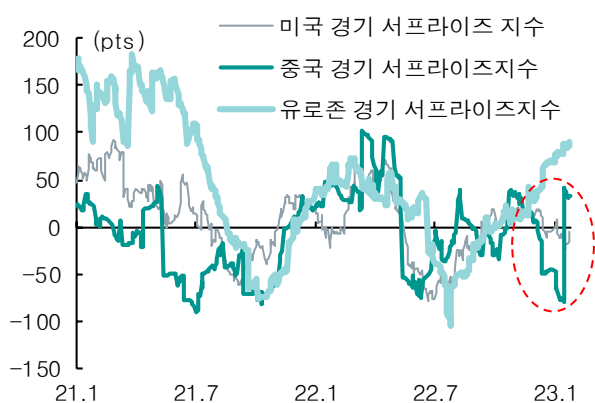
■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경제 전개 상황이 향후 국내의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부상

- 1월 금통위 통방문에서는 향후 국내의 금융시장 및 경제 성장 경로의 주요 변수로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회복 속도’에 대한 문구가 신규 추가
-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팬데믹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 글로벌 전망기관들은 중국 방역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전망했으나, 중국은 백신 접종률 등의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급격한 완화를 추진
 - 중국 부동산 경기 또한 정부의 집중적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
-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 경제활동 재개되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감염자 비중이 낮아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경제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일 경우, 국제유가 재상승·수요측 물가압력 자극 등의 경로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불안 요인을 재점화할 수 있음에 유의
 - 반면, 이동 제한 조치 해제 및 생산 차질 완화 등은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효과를 점검할 필요

■ 국내금리는 美 연착륙 기대 및 대외 통화정책회의 경계감 등으로 가격부담이 부각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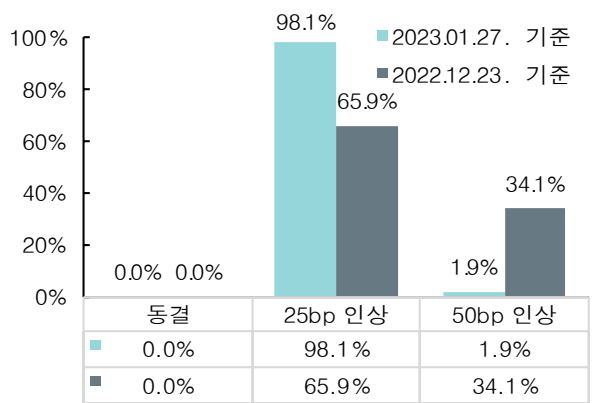
- 美 금리는 연준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캐나다의 피벗 시사 등에 따라 추가 긴축 우려가 약화된 가운데 FOMC에서의 연준 스탠스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월러 연준 이사는 2월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선호한다고 발언해 비둘기파적 입장 시사
- 국내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역전 폭 확대 및 美 연착륙 기대 강화, 2월 FOMC와 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둔 경계감 등으로 가격 부담이 부각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5%~3.50%, 3.20%~3.45% 범위로 전망 

■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 2월 FOMC 금리 인상 전망 변화



자료 : CME Fedwatch

외환: 유로존 회복과 진격의 유로화

오 현 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달러화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 등으로 약세흐름을 지속하였으며 유로존의 경제지표 호조와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유로화 강세가 가세하며 달러화 약세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 속에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흐름을 나타냈다. 향후 외환시장은 2월 FOMC를 앞두고 시장과 연준의 시각차 등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원/달러 환율] 달러화 약세 속에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지속

-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속 BOJ 통화정책 변경 기대에 따른 엔화 강세, 예상보다 양호한 中 '22.4/4분기 성장률 발표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에 연동되며 하락세
 - 중국의 '22.4/4분기 GDP는 소비를 중심으로 2.9% 성장(시장 예상치 1.8% 상회)
- 또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및 채권 순매수 속에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으로 수급여건도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로 하락
 -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22.12월) -1.7조원 → ('23.1.2일~26일) +5.8조원
- 다만, BOJ의 정책 유지 결정에 따른 엔/달러 반등, 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동결에 따른 위안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억제


■ [국제 환율] 美 경기지표 부진과 긴축우려 완화 등으로 달러화 약세 지속

- 달러화는 미국의 12월 소매판매 부진(전월대비 1.1% 감소)과 생산자물가 하락 전환(전월대비 0.5% 하락) 등으로 연준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약세
 - 특히, 1.26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폭 축소와 함께 향후 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및 경로 조절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 약세 심화
- 유로화는 ECB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속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 지속
 - 유로존 1월 종합 PMI와 서비스업 PMI(속보치)는 각각 50.2, 50.7로 기준선(50)을 상회하였으며, 제조업 PMI도 전월(47.8)보다 개선된 48.8을 기록
- 엔화는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정책전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으나, 정책 유지 결정과 BOJ 인사들의 완화된 통화정책 고수 의지 표명 등으로 약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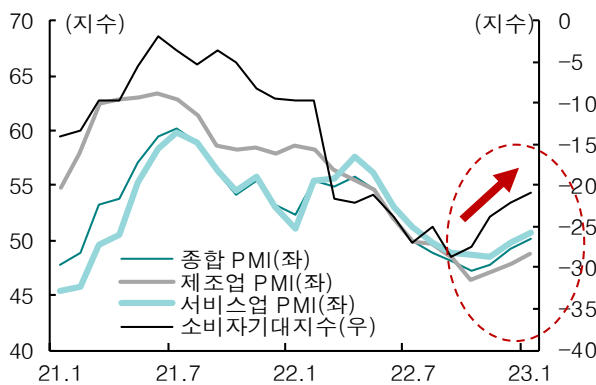
■ 미국과 유로존간 경기 및 금리 격차 축소 기대로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 유로존, 에너지 리스크가 축소된 가운데 지표 개선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 완화
 - 당초 예상보다 높은 3Q 성장, 전쟁 전 수준으로 하락한 가스·원유 가격, 물가상승세 둔화, 강한 노동시장 등으로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약할 전망(유로 재무장관회의)
- 특히, 美 경제지표 부진 및 경제전망 하향 등과 대비하여 미국·유로존간 경기 격차가 축소되면서 달러대비 유로 강세 지속(달러/유로는 9개월래 최고수준 기록)
-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완화와 달리 높은 물가수준 등으로 ECB가 매파적 행보를 강화하면서 美 유로존간 금리 격차 축소 기대가 높아지는 점도 유로화 강세 요인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 경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로화 강세를 촉발한데 이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빠른 금리인상을 강조
- 다만, 러시아발 에너지 수급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금리인상에 따른 주변국 금융 시장 불안 확대(금융 분절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유의

■ FOMC를 앞두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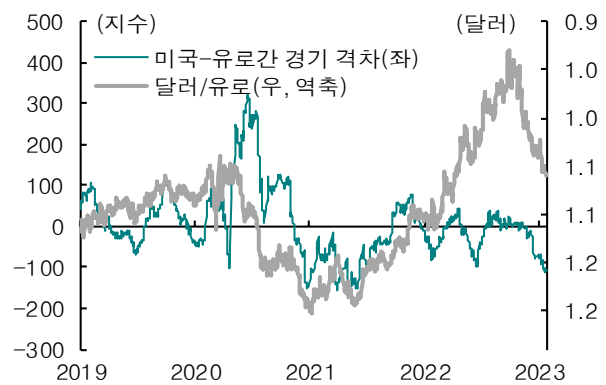
-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대로 원/달러 환율의 하방압력이 지속되었으나, 1월 수출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 등 펀더멘털 측면의 불안요인은 상존
- 시장에서는 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 기대가 형성된 반면, 연준 매파 위원들은 여전히 인상 속도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불확실성 확대
 - CME Fedwatch(1.26일 기준): 25bp 인상 예상 99.7%, 50bp 인상 예상 0.3%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FOMC회의에서의 금리 결정과 점도표, 시장반응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며 1,200~1,250원에서 등락할 전망 

■ 유로존 PMI와 소비자기대지수 추이



자료 : S&P, Bloomberg

■ 美-유로존 경기 격차와 유로화



주: 경기격차는 미국과 유로존간 Citi Surprise Index 차이
자료 : Bloomberg

부동산: 주변 여건 상, 시장 회복은 쉽지 않다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매수심리 위축과 가격 추가하락 우려가 증첩되면서 전국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강화되었다. 1.3 규제완화로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대거 해제되고(강남3구 및 용산구 제외)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으나 차주별 DSR 규제, 기존 공급계획 물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로 가격 하방압력이 가중되어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미상환 우려가 증대되고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으로 구조 변화가 가속되고 있다.

■ 매수심리 위축과 가격 하락 우려가 증첩되면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 강화

- 기준금리 인상과 가격 하락 우려, 부채 부담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된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폭 확대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77(22.10월) → -1.37(11월) → -1.98(12월)
- 부채 상환 부담으로 매매 거래량은 최근 5년 하반기 월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2017~2021년 하반기 8.4만호, 2022년 하반기 3.4만호) 모든 유형에서 가격 하락
 - 유형별 상승률(% , MoM, 11월/12월) : 아파트 -2.02/-2.91, 연립 -0.52/-0.85, 단독 -0.12/-0.13
- 경기침체 우려와 비수기가 겹쳐 전월세 가격 모두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전세가격은 이자 부담 가중, 매물 적체 심화,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폭 확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88(22.10월) → -1.55(11월) → -2.42(12월)


■ 규제지역 등 관련 규제가 대거 완화되었으나(1.3일) 주택시장 침체는 지속될 전망

- 대출 규제와 거래 제약이 가중되던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되어 주택시장 내 규제가 대거 완화
- 또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분양주택의 임대 전환이 가능해졌고 청약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
- 이에 더해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인 기준금리는 1월 인상 이후 장기간 동결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세가 완화되리라는 의견이 대두
- 하지만 차주별 DSR규제 유지, 미분양 및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방압력 가중, 가격 추가하락에 대한 믿음 지속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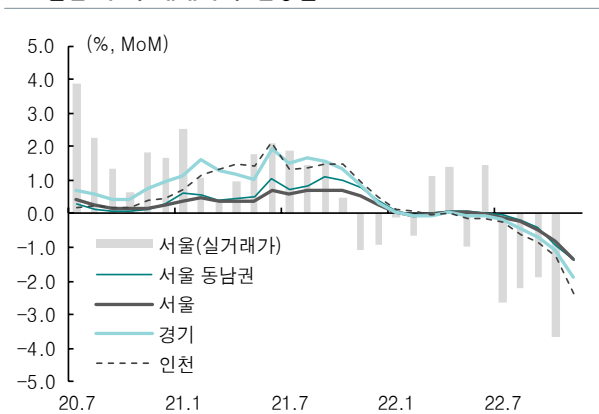
■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미상환 우려,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 등이 부각

-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하면서 전세가격과 대출금의 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미상환 리스크가 증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고 건수가 2021년 2,799건에서 2022년 5,443건으로 급증
- 또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깡투자가 위축되고 자금 유입이 축소되면서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감소해 주택시장 회복 지연에 영향 끼칠 가능성
-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증대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된 결과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
 - 월세 거래량 및 비중(만건, %): 89/41(2020년) → 102/44(2021년) → 136/52(2022.11월)
 - ※ 월세 거래량은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

■ 한편, 경기 침체로 개발이 연기된 부지, 무순위 청약 등에 투자수요의 관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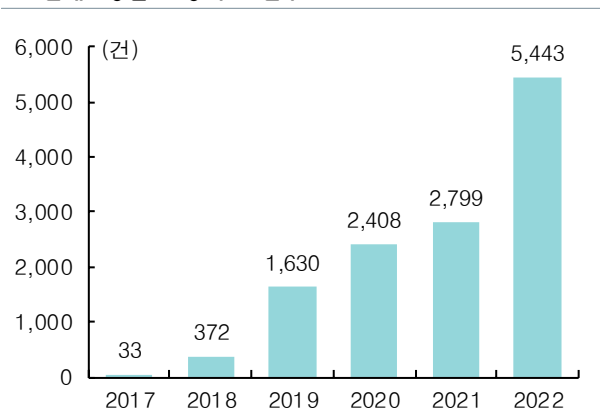
-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획이 연기된 부지, 조달금리 부담에 대주단 모집이 어려워 투자가 보류된 물건 등에 투자수요의 관심이 증대
 - 글로벌 자산운용사, 외국계 기관 등이 투자기회를 모색하며 한국 시장에 주목
-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기한이 연장(2년→3년)되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거래량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 증대
-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후 임대하거나 매각 후 차익을 얻는 미분양 펀드가 조성되어 건설사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대응책이 구체화될 가능성 상존
 - 금융위기 이후 종합지원방안 중 하나로 미분양 매입펀드가 조성된 사례 有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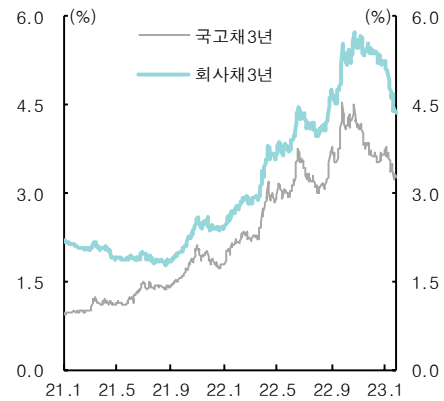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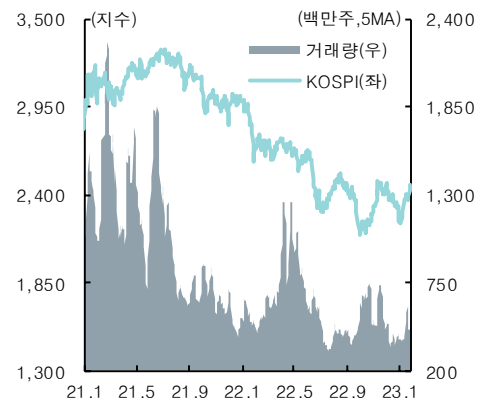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월 18일	3.37	3.70	3.68	4.56	3.39	3.35
1월 19일	3.39	3.68	3.61	4.40	3.25	3.22
1월 20일	3.48	3.67	3.62	4.45	3.33	3.30
1월 25일	3.44	3.66	3.60	4.40	3.29	3.24
1월 26일	3.46	3.65	3.60	4.36	3.27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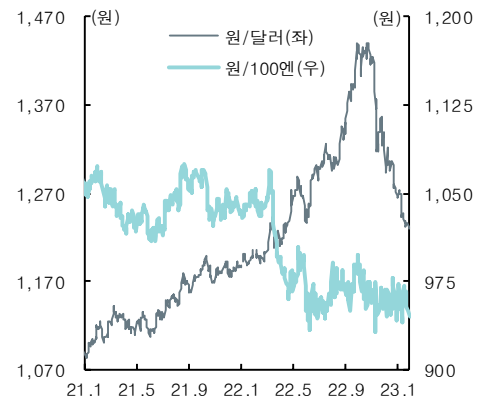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월 18일	2,368.3	54,986	537	731
1월 19일	2,380.3	54,482	370	5,721
1월 20일	2,395.3	50,255	303	2,310
1월 25일	2,428.6	66,654	550	7,682
1월 26일	2,468.7	82,064	487	8,123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월 18일	1,237.4	960.2	183.4	1,334.8
1월 19일	1,232.1	959.1	181.8	1,334.3
1월 20일	1,235.5	953.2	182.1	1,341.1
1월 25일	1,231.7	950.2	181.6	1,344.2
1월 26일	1,230.7	944.9	181.4	1,3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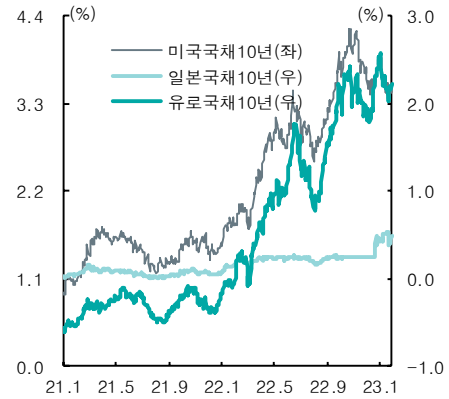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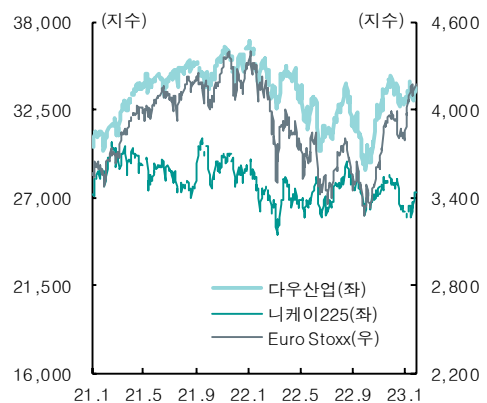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77	4.43	3.87	0.42	2.57
1월 18일	4.33	4.81	4.08	3.37	0.46	2.02
1월 19일	4.33	4.82	4.13	3.39	0.44	2.07
1월 20일	4.33	4.82	4.17	3.48	0.39	2.18
1월 25일	4.33	4.81	4.13	3.44	0.45	2.16
1월 26일	4.33	4.80	4.18	3.49	0.49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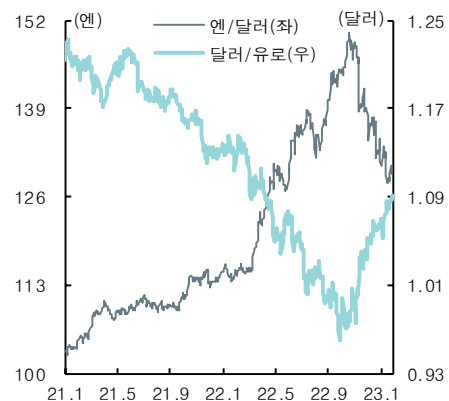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3,147.3	26,094.5	3,089.3	3,793.6
1월 18일	33,297.0	26,791.1	3,224.4	4,174.3
1월 19일	33,044.6	26,405.2	3,240.3	4,094.3
1월 20일	33,375.5	26,553.5	3,264.8	4,119.9
1월 25일	33,743.8	27,395.0	-	4,148.1
1월 26일	33,949.4	27,362.8	-	4,174.0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월 18일	128.86	1.079	83.7	1,907.0
1월 19일	128.43	1.083	81.4	1,923.9
1월 20일	129.58	1.086	83.9	1,928.2
1월 25일	129.59	1.091	83.5	1,942.6
1월 26일	130.24	1.089	83.2	1,930.0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1월 27일 인쇄

2023년 1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